**선교매트릭스를 읽고**

TMTC 15기

금산 별무리 배진환

‘선교매트릭스’ 책은 단순한 외국으로 나가 사람들을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치기어림에서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대안으로까지 선교에 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 선교라는 것은 전임사역자나 전문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천명이었다. 일반성도에 불과한 나에게는 굳이 타이틀을 단다면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로서 직분을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TMTC 훈련과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다시 한 번 가슴이 뛰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우리가 가야할 안식처와 같은 공간이 아니다. 지상과제 명령인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이루어야할 사명인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는 교회, 선교단체 등이 행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선교적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책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해외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은 급속도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기복주의, 정과 연으로 된 가족주의, 개교회주의, 성장 논리와 우상 숭배, 교회와 사회의 분리와 이분법적인 사고, 이성 경시 현상과 단순 논리주의 등 한국 선교의 위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극복방안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 내 마음을 움직인 해결방안은 ‘남은 자’ 사상을 기억하는 것이다. 책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 즉 연약한 자, 숨어 있는 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자,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다.”

매일의 순간에 삶에 자족하며 살았다. 이 정도면 참 잘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자만이었다. 그렇게 한쪽 눈을 감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만을 보며 살아온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의 손길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에게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이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이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소망을 두었더라면 계속 한 쪽 눈을 감고 외면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한쪽 눈을 뜨고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어서야 할 것이다.

아직은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지만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야하리라 생각한다.

**약함의 선교를 읽고**

TMTC 17기

금산 별무리 배진환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님께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 선교라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재정이 갖춰지고, 가족들이 건강하며, 한국에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떠날 수 있는 선교는 없다. 우리 가족은 선교에 대해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적으로 부족한 걱정, 떠나는 가족들의 건강상태, 남겨진 부모님의 건강, 믿음의 연약함이 방패가 되어 선교에 대한 떠남을 주저하게 되었다.

이 책은 󰡐모든 것을 갖춘 강한 선교사는 없다󰡑라고 한다. 늘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선교의 대상인 에콰도르인들만을 바라보고 있다. 결국 그 부족함은 뜻하지 않는 시간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이 책을 읽는 이 순간에도 두려움이 많다.

책의 골자는 기도제목, 선교사역, 사역 중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책을 읽던 중 기억에 남는 일화가 몇 가지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중 인형을 태우는 풍습이다. 에콰도르는 12월 31일 밤 12시에 일년 동안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형상을 닮은 인형을 가져와 태우는 풍습이 있었다. 선교사님은 풍습을 교회적인 방법(?)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닮은 인형을 가져와 1등을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하지만 첫해 이후 사람들은 기존의 풍습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선교의 대상인 그들의 옛 종교와 세계관을 충분히 연구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민사상으로 무장하여 무조건 옳은 정답인 기독교를 전파한다면 원주민들은 큰 반감을 가질 것이다. TMTC 훈련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원주민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교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들을 교화대상으로서만 대한다면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앞으로 선교를 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원주민을 이해하기 위한 삶의 태도가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이다.